



Hana FX Weekly Letter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외환파생상품영업부

2025. 11. 17

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,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,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

주간 달러/원 동향(11/10~11/14)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미 상원의 임시예산안 절차 표결 가결로 정부 운영 재개 가능성 높아지자 위험선호 심리 회복된 영향으로 환율은 하락 출발. 이어 BOJ 금리 인상 지연 전망 속 엔화 약세가 강달러 자극한 가운데 해외투자 환전 수요 등 수급상 매수 우위 지속되면서 상승 전환
- 중반, 한은 총재의 구두개입성 발언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된 영향 더해지며 추가 상승, 장중 1,470원선을 터치
- 후반, 일 신정부의 경기부양 기조 및 통화완화 기대로 엔화 약세폭 확대되자 상승 흐름 이어짐. 이어 주 후반,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의지 표명과 한-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 후 1,450원 후반대에서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,457.0	1,475.4	1,450.8	1,457.0	0.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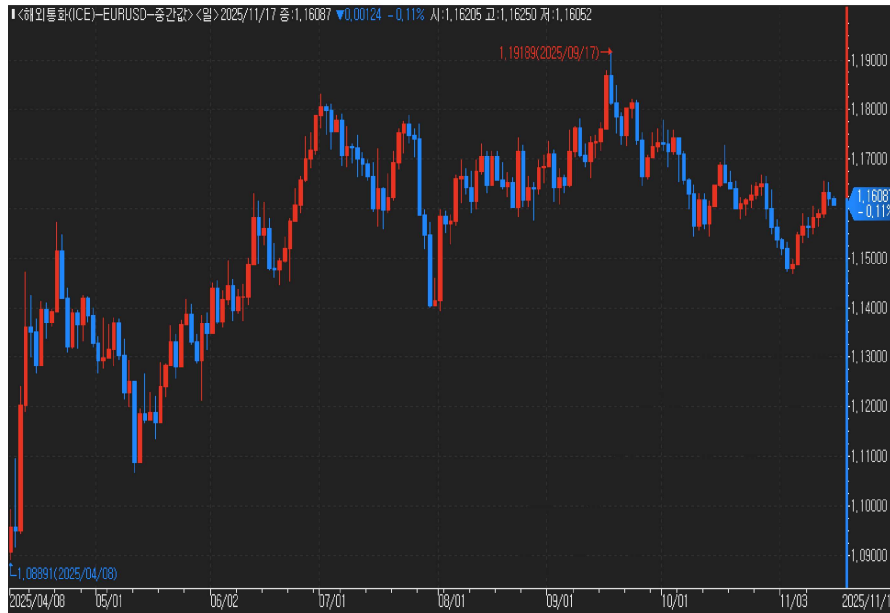
달러/원 전망

- 금주 달러원 환율은 한층 강화된 외환당국 경계심리에 하락 압력 받을 것으로 예상
- 지난 금요일,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, 국민연금 환혜지 등 가용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강조. 이에 심리적 저항선 형성되며 원화 약세 진정된 영향으로 환율 하락 흐름 예상
- 다만, 최근 연준 위원들이 12월 추가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. 이에 달러 강세 지지되는 가운데 하락폭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. 또한, 수입업체 결제 및 해외투자 환전 수요 등 수급상 저가 매수세 유입될 측면도 하단 지지 요인으로 판단

예상거래범위

1,445원 ~ 1,470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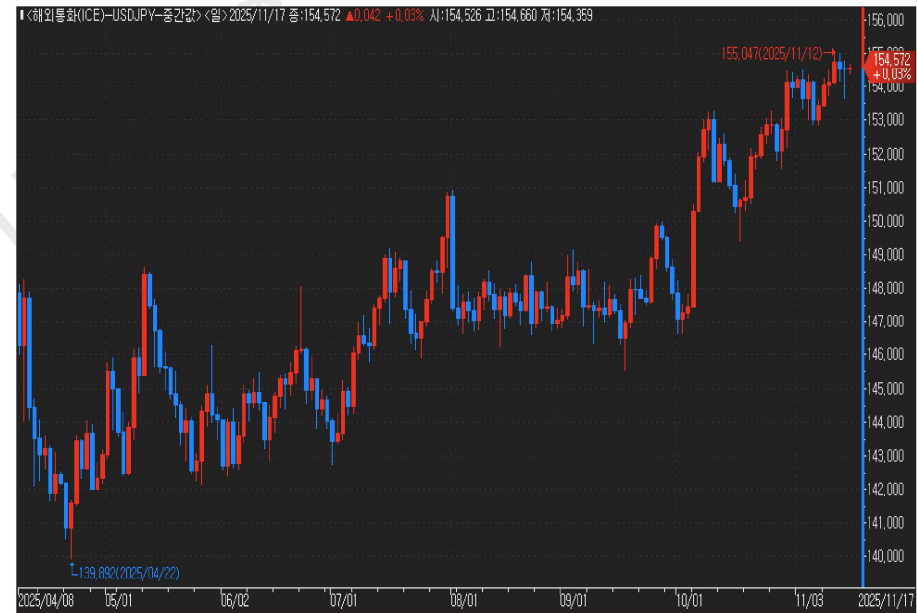
유로·엔화 동향 (11/10~11/14)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뉴욕증시 부진 등 위험회피 분위기에도 현 금리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ECB 부총재의 발언에 동결 가능성에 무게 실리자 유로화는 보합 출발. 이어 ECB 주요 인사들이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강세
- 중반, 미 고용보고서 발표 부재한 가운데 10월 민간고용이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연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커진 영향으로 달러 대비 강세 지속
- 후반, 미 정부 섣다운 해제에도 경제 데이터 신뢰도 저하 이슈와 연준 내부 견해차 등에 달러 약세 나타나자 추가 강세. 이어 주 후반, Fed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인 발언에 연준 12월 금리동결 전망에 무게 실리자 달러 대비 약세 전환 후 1.16달러대에서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1564	1.1656	1.1541	1.1621	+0.0057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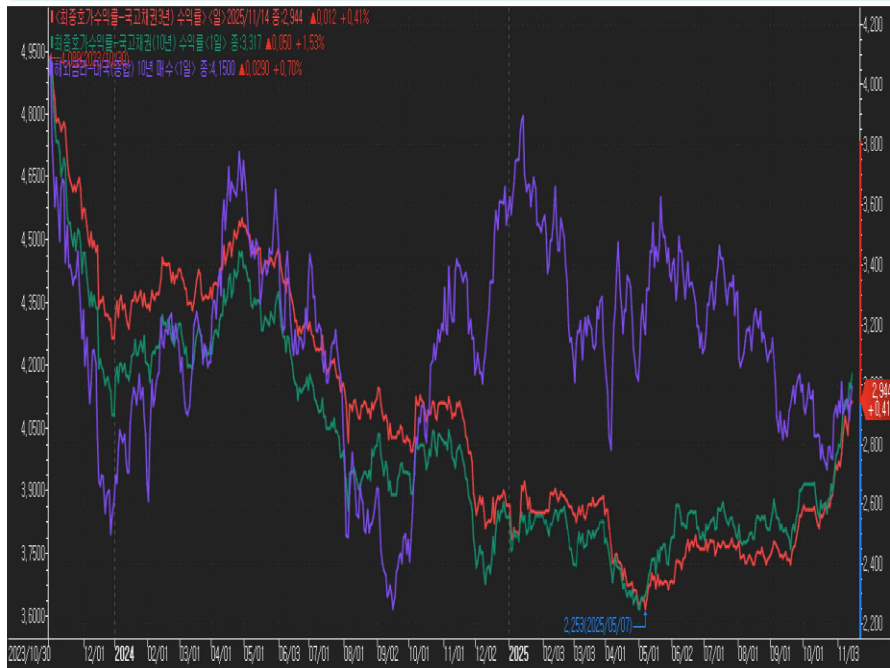
엔화 동향

- 주초, 미상원의 임시예산안 가결 처리 등 연방정부 섣다운 종료가 가시화 되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 완화된 영향으로 엔화는 약세 출발. 이어 다카 이치 총리가 내세운 적극적인 재정 지출 계획 등에 엔화 약세 전망 부각 되면서 추가 약세
- 중반,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, BOJ와의 정책 협력 등을 강조한 다카이치 총재의 발언에 BOJ 금리인상 지연 전망이 우세해진 가운데 엔화는 장중 155엔대까지 상승
- 후반,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각되며 미 국채금리 상승했음에도 일본 외환당국의 연이은 구두개입에 약세 폭 일부 되돌림. 이어 주 후반, 일본 3분기 성장을 발표 앞두고 관망세 나타난 가운데 154엔대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53.4	155.1	153.4	154.5	+1.1

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중시 동향 (11/10~11/14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초반, 시장이 미 연방정부 섰다운 종료 여부를 살피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3년 국채선물 매수 강화에 중단기 구간 중심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. 이어 미 상원의 정부 재개를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, 미 국채금리 상승 흐름이 나타났지만, 국고채금리는 외국인 투자자가 3년 국채선물에 대한 순매수를 이어가며 시장 강세 분위기 속 하락세 지속
- 중반 들어, 한은 총재의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통화정책 경로가 인하 사이클이나, 11월 경제 전망 결과에 따라 재조정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상당히 큰 매파 성향으로 인식되며 국고채 금리 급등 양상으로 전환
- 후반 들어, 미 민간고용지표 부진이 지연 반영된 영향과 유가 급락으로 미 국채금리 하락 양상을 나타냈지만, 국고채 금리는 전일 한은 총재 발언 영향 지속해서 반영된 흐름 속 혼조세 나타난 후, 주 후반, 시장내 투자심리 악화 상황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국면 속 한은 구두개입과 이후 실효적 대책 나올 수 있다는 기대 등으로 소폭 상승 마감



주간 중시 동향

- 초반, 코스피는 미국 정부의 섰다운 사태 마무리 국면 소식과 한국 정부의 배당 소득 분리과세 완화 추진 등으로 큰 폭 상승 출발. 이어 뉴욕중시의 섰다운 해제 기대감 속 매수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코스피도 미국發 혼풍을 반영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이어진 양상
- 중반 들어, 미국 섰다운 종료 임박 소식이 국내외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지만 미 기술주가 다소 조정을 받은 영향 등으로 코스피 상승 폭 제한된 국면 시현
- 후반 들어, 미 섰다운 종료 소식에 투자심리 회복 속 상승 추세 전환한 코스피는 주 후반, 뉴욕금융시장에서 기술주 하락과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 불안 요인 재차 부상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유가증권에서의 2조원 넘는 순매도 영향 등으로 크게 하락하며 마감